

해방직후 희곡에 나타난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

정 오 산*

<차례>

1. 서론 - 일제잔재 청산의 과제와 민족적 자기비판
2. 연극인의 자기비판과 의미
3. 친일군상의 풍자, 그 생존방식의 양태
4. 세대간의 갈등과 친일파의 패배
5. 결론 - 이상과 현실

1. 서론 - 일제잔재 청산의 과제와 민족적 자기비판

해방 3년은 감격과 기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조선 민족이 주체가 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억압과 구속의 상태에서 풀려난 상태를 말하는 ‘해방’이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를 상실하고 세계사의 조건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지배자의 압제에서 벗어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은 남북의 분단을 예정하고 있었던 강대국의 이권다툼이었고,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해방이 ‘광복’이라는 의미로 적극화되어 진정한 해방의 감격을 나누기도 전에 또 다른 역사적 시련이 부여되었다.¹⁾

* 단국대 박사과정

1) 권영민, 『한국민족문화론연구』, 민음사, 1988, p.361.

8·15 해방이 곧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선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감격에 빠져있을 수 없었으며 또한 해방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이라는 과제 앞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간이 바로 해방공간이었다. 즉 조선 민족은 '여러 측면에서 크게는 민족적 아이덴티티, 작게는 각 개인의 자기 동일성의 회복과 확립'이라는 과제에 맞서 싸워야 했다. 개인은 개인대로 자기보존본능이나 상황이동예의 욕구를 바탕으로 깔고 이룬바 인간해방을 도모 하였던 것이다. 친일파조차도 대부분 이러한 본능과 욕구를 포기하지 않았다.²⁾ 그러므로 해방을 맞이한 감격과 새 조국 건설에의 들끓는 기대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생존방식에 비례하여 질서를 찾지 못하고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며, 각 개인의 이념적 선택을 요구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이념들의 난무 속에서도 공통되는 것은 민주주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었는데, 이에 따라 자연 스럽게 제기된 문제가 일제잔재와 봉건잔재의 청산이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좌우 이념의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분열과 혼란의 상태는 전민족의 감격과 기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새조국 건설의 과제는 일체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가 전제된 것이었고, 그것은 일체의 강압적인 식민정책에 의해 왜곡되고 파괴된 민족의식과 민족문화의 회복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말과 글을 수단으로 민족의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문인들에게도 식민지 시대 문화의 청산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 문화의 청산은 친일행위를 한 문학예술인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자민족이 주체가 되어 독립을 획득하지 못한 전민족의

그밖에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윤홍로, 「해방기 한국소설연구」(『동양학』제 23집, 동양학연구소, 1993),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 연구』(일지사, 1991) 등에서 '해방', '광복', '독립'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2) 조남현, 「해방직후 소설에 나타난 선택적 행위」,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pp.119~120.

문제였기에 식민지 잔재의 청산은 민족전체의 자기비판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방 후 연극운동 이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 한효의 다음과 같은 언술에서 민족적 자기비판의 필요성과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민족적 자기비판이란 새로운 민족생활의 위대한 표현이며 양양되는 정치적 혁명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자기교육에의 뚜렷한 노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자의 자기비판도 또한 새로운 문학생활의 하나의 표현이며 양양되는 진보적 창조적 이념에 입각한 자기교육에의 힘찬 노력이 아니면 아니된다.³⁾

한효는 “조선 사람치고 일본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기에 자기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준열한 자기비판’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방문단의 건설 앞에 자기비판은 단순히 참회와 파피에 그쳐서는 안되며 건설적인 성실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효의 발언은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것이었으나 ‘문학자의 자기비판’이라는 이름 아래 열린 좌담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친일행위는 개인의 양심문제로 떨어져 참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 앞에 놓인 민족사적 과제에 덮혀서 희석화되고 만다.

해방된 조선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전민족의 통일전선을 구축하여 건설사업에 매진하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권력의 중심인 또 다른 외세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조선민족의 열망을 누르고 거대한 근대관료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특혜를 누리던 집단을 재기용했고, 청산해야 할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는 되살아나서 득세하는 현실을 낳았다. 결국 자기비판과 일제잔재의 청산 노력은 시작되자마자 좌절되고 만다.

그러므로 일제잔재 청산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크게 두 가

3) 한효, 「문학자의 자기비판」, 『우리문학』 장간호, 1946.2(양승국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13, 태동, 1991. p.236)

지로 볼 수 있다. 내적으로는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이념적 혼란 속에서 진지한 자기비판에 인식했던 점과 외적으로는 군정의 점령과 지속에 따라 민족이 주체가 된 독립국가 건설의 좌절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직후부터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창작된 문학작품들은 해방의 감격과 건국에 대한 민족의 고민과 노력을 형상화하거나 봉건잔재와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를 친일파가 재득세하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제기하고 지향점을 찾으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좌우의 이념대립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인식을 보여주는 봉건잔재와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를 세 편의 희곡 <황혼>, <고목>, <살아있는 이중생 각>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 작품들은 창작된 연대가 순차적이며 현실적인 정치의 변동과 관련하여 친일파가 척결되기는커녕 재득세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당대의 식민지 잔재 청산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곳곳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의 탐색과 해체를 위한 정당한 인식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극인의 자기비판과 의미

해방직후 일제잔재는 가시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제도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의식의 측면에서도 검토되고 청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식민지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꾼 것은 표면적으로 조선인들의 정신적 자유를 허용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말과 글을 말살하여 저항적인 민족의식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고등식민정책에 불과했다. 지배민족에 동화하고 협조하는 길이 조선의 발전된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적 마비를 일으키는 야만적인 통치방식이다.

일본은 조선의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의 봉건적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침투를 행했다. 따라서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는 봉

건잔재 청산을 전제로 한 민족적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36년 동안이나 타 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미래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이 우선하는 지배계층을 이용하여 통치의 질서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땅을 신성하게 여기고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조선인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일제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을 회유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신분적 질서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친일파는 개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봉건유제와 긴밀히 연결된 거대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봉건유제와 일제잔재 청산 문제는 좌우의 이념을 넘어선 민족적인 과제였으므로,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좌우세력이 통합된 통일전선전술을 도모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다.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문단에서도 해방직후부터 문단의 좌우가 구별되어 대립한 것은 아니다.⁴⁾ 남로당의 노선에 입각해 있었던 좌익 역시 민족문학론을 내세웠으며, 민주주의 민족문학 건설과 봉건유제와 일제잔재의 청산, 국수주의 배격의 요소는 누구든지 긍정하는 것이었으므로 문학의 정치적 참여를 반대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문인들도 동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⁵⁾

해방직후 문단은 재빠른 조직화에 성공한 좌익측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식민지 시대부터 가져왔던 이념성으로 인해 정치적 선택을 전제로 한 활동을 시작한다. 연극인들 역시 45년이 저물기도 전에 ‘조선연극건설본부’(1945.8.16)와 ‘조선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1945.9.28)의 조직화와 노선차이로 인한 대립을 ‘조선연극동맹’(1945.12.20)으로 일원화하고 통합할 정도로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하였다.

‘조선연극동맹’은 문화운동 전반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지침⁶⁾과 같이 진

4)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제3문학사, 1989, pp.135~141 참조

5)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격인 조현현은(『새로운 문학의 방향』, 『예술부락』 창간호, 1946.1)에서 일제 통치가 낳은 기형적인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과 같이 문학에서도 기형적인 신문학을 남겨놓았으며 신문학의 리얼리즘은 부르조아 리얼리즘이었는데, 그것 역시 기형적인 성과밖에 얻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해방 이후 조선문학의 나아갈 방향은 프로리얼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문학의 방향은(『문학자의 태도』, 『문화창조』 창간호, 45.12)에서 ‘긍정하는 침묵’ 속에서 방향성을 잃은 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해방 직후 민족주의 진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보적 연극 수립을 목표로 하고 일본잔재의 소탕, 봉건유제의 청소, 국수주의의 배격, 국제연극과의 제휴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다.

예술 — 연극은 예술로서의 그 소임을 다한다는 것 외에 연극 자체 내에 있어서 반제적 반봉건, 반국수투쟁이 있어서야겠고 연극을 해방 추진시키는 운동에 있어서 가로노힌 모든 불순잔재와도, 투쟁하여야하며 연극인들이 가졌던 불순잔재의 파생물인 모 — 든 기성관념의 잔재의 청소를 위하여도 싸워야 된다는 극히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과제가 오늘 젊은 연극인에게 지워졌다.⁷⁾

나옹의 글은 연극의 대중화를 꾀한 것으로서 조선연극동맹의 기본 노선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함께 개인의 성실성이 강한 정신적 의미를 갖는 문화 분야에 있어 가장 준엄하고 성실한 자기비판이 요구되고 있었다.⁸⁾ 그러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극운동에 관한 이론과 그 실천방법의 모색에 열중한 나머지 성실한 자기비판은 상실하고 만다. 일제말 자기보존의 방법으로 의식적인 국민연극에 참가했던 자들이 자기비판보다 자기 변장에 급했기 때문이다.⁹⁾

한효의 말처럼 ‘성실한 자기비판이 재출발의 원천’이 될 수 있었지만 본격

6) 당중앙위원회,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잡정안)」, 『해방일보』, 1946.2.9~10 참조

7) 나옹, 「연극의 대중화 문제에 대하여」, 『영화시대』 속간호, 1946.4(양승국편, 앞의 책, p.278)

8) 김육, 「연극시평」, 『예술운동』, 1945.12.

“이번 혁명은 우리 민족이 자력의 영웅적 투쟁으로 달성한 바가 못되고 그저 국제적 혁명 정세의 일환으로써 가능했던 것과 갖치 오늘날 우리들의 연극도 부지불식간에 해방된 것이다. 그럼으로 시야를 연극부문에 다 옮기면 까닭없이 혼란하고 당황해서 방향과 갈피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어제까지 우리연극이 조선연극문화협회란 질곡에 率制되어 가장 반동적 역할을 해왔던 때문일 것이다. 의당히 연극인 전체는 누구보다도 냉혹한 자기 비판을 가져야할 줄 안다.”

이 글은 ‘조선연극건설본부’ 구성원의 대부분이 ‘조선연극문화협회’의 특권계급이었던 점을 들어 비판한 것이나 ‘조선연극동맹’의 결성 후에도 거의 모든 논의가 연극인들의 자기비판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몇몇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연극인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9) 이서향, 「조선연극의 나아갈 길」, 『조광』 속간호, 1946.3.

적인 자기비판의 글은 드물었으며, 작품 또한 적극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한다.¹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좌익측의 연극운동을 연극의 진실을 침해하는 정치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순수연극운동론’¹¹⁾을 제창하고, 유치진과 함께 ‘극예술협회’(1947.5)를 창립한 이해랑은 다음과 같이 조롱하고 있다.

일제 때 조선연극을 몰라서 왜적의 소위 대동아전쟁 수행에 주구적 역할을 하게 하는 전조선연극문화협회의 이사 심영(沈影) 안영일(安英一) 송영(宋影) 김태진(金兌鎭) 등이 과거의 반민적 과오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다시 새로운 일제나 만난듯이 연극건설본부에서 여전히 큰 얼굴을 하고 해방 후 또다시 연극계의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동분서주하던 것은 결코 보기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 후 연극건설본부가 해소하고 새로 연극동맹이 창설되었을 때 전기(前期) 제씨(諸氏)를 지도적 입장에서 제외한 것은 무엇보다도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¹²⁾

그러나 좌익측 연극인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전쟁수행에 적극적인 협력을 뜻하는 신체제운동의 이념인 국민연극의 대표적인 활동조직이었던 ‘조선연극협회’(1940.12.22 결성)의 조직구성과 그 활동을 보면 이러한 비판은 균형을 잃고 있다.

‘정치현실에서의 연극의 해방’을 부르짖고 순수연극운동에 매진한 ‘극예술협회’(1947.5)와 신청년(1947.10)의 주요 구성원인 유치진, 이해랑, 김영수, 박진 등은 ‘조선연극협회’의 이사로, 국민연극의 이론과 실천을 표방한 현대극장(1941.3.16)의 대표적 활동가로 국민연극의 이론과 창작활동을 주도해왔던 것이다. 이들 역시 ‘이념은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있지만 기술은 하루 저녁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명분에 구애하지 않고 연극을

10) 1945년 12월경에 열린 좌담회 ‘문학자의 자기비판’을 제외하고 자기비판에 관한 글은 김영석, 작가의 자기비판(『중앙신문』, 1945.11.21~22)과 한효의 ‘문학자의 자기비판’(『우리문학』창간호, 1946.2)이 있을 뿐이다.

11) 이해랑, 「연극의 순수성」, 『예술조선』2, 1948.2.

12) 이해랑, 「해방 4년 문화사」, 『신천지』, 1946.8.(『허상의 진실』, 새문사, 1991. p.58.)

고수'하기로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8·15해방까지 만 4년간 일제가 목적인 침략전쟁 완수와 민족문화 말살정책에 추종한 반동연극의 표본이 되고 말았다.¹³⁾

이상의 사실로 볼 때 해방직후 연극인들은 성실한 자기비판을 통한 자기극복에 실패한 셈이다. 이들은 좌우합작의 통일전선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한 정치적 현실에 휘말려 서로 다른 이념적 행로를 겪게 된다.

해방직후 연극인들은 과거 친일 행적에 대한 자기비판을 전제로 한 연극을 건설하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진지한 자기비판은 이념적 매진이나 침묵 또는 변명의 양태를 띠고 적극화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연극론으로 화합하지 못한다. 연극인들의 제각기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이상은 달랐지만 민족의 이상과 다르게 변해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해방의 감격과 의미를 적극화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형상화한 시대극을 많이 썼으며, 자기 비판의 실패로 인한 책임의식을 친일군상들을 풍자한 작품들로 대신한다.

3. 친일 군상의 풍자, 그 생존방식의 양태

친일파 척결의 문제는 일제잔재 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¹⁴⁾이며 우선적으로 단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토지개혁 및 민주주의적 재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봉건유제 청산과 함께 사회의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던 친일파의

13)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87. pp.318~329 참조

14) 이현중, 「해방이후 친일파 처리문제 연구」,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1990. pp.16~17 참조

일제잔재청산의 내용으로는 첫째, 일제시대의 제도, 기관 및 법률의 폐지 둘째, 친일파 척결 셋째, 일제문화(언어, 풍습, 습관, 가치 및 사상)의 제거를 들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친일파 척결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기관, 법률 및 문화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친일파는 바로 민족국가 건설과 사회 건설에 반대되는 저해되는 가치, 사상 태도 및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척결문제는 민족적 자아확립과 민족의식을 통일하는 과제임과 동시에 정통성 있는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핵심과제일 수밖에 없다. 토지분배와 친일파 척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정파의 이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정치에서는 이 문제가 정치투쟁을 일으킬 만큼 민감한 문제였다. 그것은 각 정파의 민족의식과 국가건설의 노선이 달랐던 점에서도 갈등의 요소가 되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날카로운 대립을 피할 수 없었다.

해방직후 여러 진영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것은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조국의 자주독립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의 적을 타도하기 위해 취한 전술이다.¹⁵⁾ 그런데 민족의 내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전선의 노력은 민족주체세력의 형성과정이기도 했으므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파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정치적 사활의 문제였다.¹⁶⁾ 해방 이후 수많은 정당과 정치세력의 난립, 이합과 집산은 바로 민족주체세력의 형성시도 과정이자 각 정파 지도자들의 주도권 쟁탈의 과정이었다. 이념이나 쟁점의 대립은 항상 이해관계의 대립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략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고, 친일파 처리문제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작가들 역시 친일파에 대한 풍자로 그들이 재독세하는 현실에 대한 공통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새로이 건설될 국가에서의 주

15) 민주주의 민족전선, 『조선해방 1년사』, 문우인서관, 1946.10.30. pp.92~93.

“해방후 조선인민의 요구와 과업은 민족통일운동이었다. 그것은 민족통일이 있으므로써만 자주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보적 진영에서 세계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 민족통일론을 불모짓고 좌우합작과 원칙적 통일론을 제시한 것은 불변의 원리원칙이었으니 그것은 통일론에 있어서 친일파, 민족반역자 제의 일제잔재요소 숙청 반민주주의 배척 친파쇼 세력의 분쇄 등이다.

16) 민주주의 민족전선에서는 민족통일전선의 분열에 대한 사회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조선민족의 구성은 단일적이라는 통일조건에 대한 태도는 풍부하나 그 구성요소를 분류하면 노동자, 농민, 지주 자본가, 재벌 등으로써 수할 수 있다. 이러한 각계급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소가 판이함과 동시에 각자 계급이 확보하려는 이해대상이 다르므로 그의 통일에 있어서는 양방의 통일 조건이 원칙적인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적인 고립성, 분파성, 할거(割據)성과 팽소적인 무원칙이며 명령적이며 또는 복종을 강요하는 통일론이 항상 좌우합작과 통일운동의 암이 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 민족전선, 앞의 책, p.92.

체세력은 다르게 나타나고 친일파가 재독세하는 현실적 원인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인다.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연극인들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굴종했던 행위에 대해 자기비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내외적인 원인들도 인하여 실패하고 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의식을 해방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애국자를 자처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내면의식과 행동을 풍자함으로써 보상하려고 한다. 이것은 해방을 맞아 오랜 시간에 걸쳐 훼손되었던 가치를 회복하려는 정신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정통성을 세우려는 민족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민족반역자들이 중심세력을 형성하는 부조리한 사회에 직면한 작가들은 그 부조리의 원인이 되는 인물들을 공격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쓰고있는 가면을 벗기고 정체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풍자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로널드 폴슨에 따르면, 풍자는 악을 모방, 제시, 탐구, 분석하는 것이다.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지포(pointing finger) 즉 책 너머로 그 자신의 인생에서 당연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알도록 만들어야 하거나 도덕적 입장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하여야 한다.¹⁷⁾ 따라서 풍자의 세계는 더 자유롭고 관대한 세계를 지향하는 희극의 세계¹⁸⁾(희극의 보편적 주제는 사회의 융화이며, 대개 중심인물을 사회 속에 통합시키는 형식)와는 달리 명백한 도덕적 규범으로 악을 징벌하고 교정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격대상을 조롱함으로써 얻어지는 웃음조차도 '책임질 웃음(responsible laughter)'만을 허용한다.¹⁹⁾

풍자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실제악을 폭로한다. 그러므로 풍자의 공격대상은 작자도 독자도 탐탁치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해야 하며 그 공격대상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²⁰⁾

17) 로널드 폴슨, 김옥수 옮김, 『풍자문학론』, 지평, 1992. p.15.

18) 노드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9. p.64.

19) 로널드 폴슨, 앞의 책, p.232.

해방직후 현실에서 친일군상들에 대한 풍자는 실제로 벌어지는 생생한 사실에서 취재한 것으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일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넘어서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친일파들은 개인적인 힘으로 재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보수우익의 이념과 미군정의 대한통치방식에 따른 제도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개인적 권위 이상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었다. 그들은 견고한 제도적 장치에 따른 막강한 권위에 보호받고 있는 사악한 인간들이었다.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의 중요과제, '봉건유제와 일제잔재 청산'의 구체적 대상으로 봉건적 지주와 친일파가 설정된다.

송영의 <황혼>(『예술운동』1호, 1945.12), 함세덕의 <고목>(『문학』3, 1947.4),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1949)의 주인공인 '이진수', '박거복', '이중생'은 봉건지주나 친일사업가로서 해방 후에도 자기 세계를 견고하게 지키며, 해방 전보다 더 많은 기득권을 행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기만적인 인물들이다.

<황혼>의 이진수는 동경 상과대 출신의 수완있는 실업가로 언변 좋고 외화(外華)에 능한, 매우 교활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는 일본에 기대어 사업을 유지하던 자로 해방이 되자 집 안에서 숨어지내다가 스스로 애국자가 되어 정당을 꾸미기에 바쁘다. 그와 함께 애국당에 가담하는 강병호는 시골 대지주의 아들로 도회의원까지 지낸 인물이다. 강병호는 서른 아홉 살의 나이로 새 시대를 꾸려나갈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세대지만 발전적인 세대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민중에게 친일파로 몰리워 위기를 넘긴 것에 대해 복수심리를 갖는다. 그래서 애국당의 일원으로 가담시켜준 이진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강참봉에게 얻어온 백만 원을 기부한다.

두 인물은 일제시대의 협력자로 해방 후에는 조선민족 전체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는 동지로 단결하여 오히려 조선민족은 동포애와 단결력이 없다고 통탄한다.

- 이 (자기도 흥분이 되며) 저희들만 조선놈들이고 우리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란 말요?
- 강 그러했습니다. 내가 도회의원이 된 것도 사실인즉 우리 조선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복리를 증진시켜 주겠다는 마음에서 한 노릇이올시다. 그런데 나를 친일파라고…… 아니 그러타면 총독정치 밑에서 살든 조선사람들은 모두 친일파가 아닙니까?
- 이 누가 아니랍디가. 허어 그 참 요새 와선 나같은 사람들한테도 회사니 공장이니 해가지고 같은 동포를 착취를 했다고…… 흥 그참 기가 막혀서……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업을 아니했다면 수천 명 종업원들이 무얼 먹고 살아가겠느냐 말요.²¹⁾

이들이 말하는 조선민족의 의미는 혈통적으로 친일파도 같은 민족이라는 혈통적인 민족의 개념이다. 악질분자에 한하여 처단하고 그 외에는 관용하고 포섭해서 국가건설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시 우파 민족지도자들의 포용논리이다. 친일파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인식과 포용논리는 본질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진수는 조선민족의 주체세력은 자신들의 재력, 학력, 경력, 관록으로 보아 애국당이 정당하다는 자신감으로 해외 임시정부와의 제휴를 꿈꾼다. 이진수의 계획은 꿈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는데, 실제로 이승만과 해외 임시정부 요인들은 극우 정당인 '한민당'과 친일 실업인들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정치활동을 한다. 한민당은 수뇌에 일제협력자가 있기도 했지만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응징을 정강 속에 포함시키지 않은 희귀한 정당이었다. 그것은 민중의 지지기반이 없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행정적 실권을 쥐고 있는 친일 부일세력을 끌어들이고 보호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당연했고 국내기반이 없는 이승만의 입장에서라도 미군정의 요직을 차지하는 등 실질적 여당이 되어가는 한민당과의 밀착은 가장 합리적인 행동방식이었다.²²⁾

21) 송영, 「황혼」, 『예술운동』1호, 1945.12. p.103. 이하 작품인용의 쪽수는 본문에 표기함.

이진수가 응접실에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 '조선민족대동단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친일행적을 숨기고, 친일파 척결요구를 하는 민중을 공산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점에서 작품속의 '애국당'은 '한민당'과 같은 계열의 정당으로 보인다. 그들은 해방후에도 민중을 위한 국가 건설에는 관심이 없고, 다시 지배자가 되어 민중에 대한 사물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강 그러나 영감, 다만 한 가지 염녀되는 것은 민중의 지지가 적은 듯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거야 문제 있지? 민중이란 즉 백성이란 흘러가는 물결 마찬가지로 우리들 지도자가 어딴로든지 '물꼬'를 터놓는 대로 그냥 쏟아져 흘러 내려가는 게 민중이란 거요.(후략) (p.103)

이진수와 강병호 같은 친일파들에게는 민중이란 고작해야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희생물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인식 저변에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항상 보잘것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현상은 민족지도자들이 해방직후 친일파 척결에 대한 민중의 물리력을 대안없이 막아선 사실과도 관련된다.²³⁾

함세덕의 <고목>²⁴⁾에서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일제에 협력하고 같은 민족을 착취한 경력에 대해 둔감한 지주 '박거복'이 등장한다. 일제가 몰려간 후에도 오직 자신의 토지소유밖에 관심이 없다. <황혼>의 이진수가 실업인으로서의 생존을 위해 분명한 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비해 박거복은 지

22) 김도현, 「이승만노선의 재검토」, 『해방전후사의 인식』, 1980. pp.310-312.

23) 해방직후 민중들은 일제 36년간 억눌린 감정을 분노로 표출한다. 민중들은 경찰서, 군, 면 사무소를 습격하고 신사, 봉안전을 파괴하였으며 일본인과 친일 경찰, 관리 등을 구타, 폭행, 살해하였다. 45년 8월 16일에서 25일까지 단 열흘동안 사고발생건수가 914건으로 통계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하루에도 백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민중들의 의사표현 입과 동시에 일제식민체제의 모순을 타파하고 친일파를 척결하는 것으로 국가건설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뜻한다. 그러나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유지와 질서확립을 이유로 민중역량을 조직화하지 못 하고 그에 대한 바른 대안도 세우지 않은채 오히려 막고 말았다. 이현중, 앞의 글, 34-41참조

24) 함세덕, 「고목」, 『문학』3, 1947.4.

배자로서의 면모보다는 이기적인 봉건지주로 전형화된다.

박거복은 ‘돈을 철폐에 가득 모으고, 그 돈을 꺼내서 땅을 사들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는 수전노적인 성격과 자신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있는 혹은 목에 달고 있는 기형적인 외모로 인해 희화화된 인물이다. 사고의 경직성과 신체가 가지고 있는 기형성은 정상적인 사회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웃음을 일으키게 된다.²⁵⁾

박거복은 자기 목에 달려있는 혹은 흉하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오각하 연설회장에도 나가지 못 한다. 딸 수국에게 오각하를 위한 보료를 준비한다고 한 달 동안이나 자수를 놓게 할 정도로 기다린 연설회장에 가고 싶어서 한여름 복 중에 명주목도리를 목에다 감는 해프닝을 벌인다. 같은 부류인 광목사의 거짓 격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목 위에서만나마 대회장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인다.

광목사 거복씨, 오각하께서 우리 조선의 가장 큰 죄인인 친일파, 민족반역자까지라두, 다 함께 손을 잡구 나가자구 하신 분이요, 이처럼 관대하시구, 인자하신 각하께서, 거복씨 목에 붙은 조고만 혹은 한 개를 문제시하시겠소?

(중략)

거복 (혼연 결심을 도리키고) 그럼, 잠깐만 기대리슈. 가치 나갑시다.
(거복, 장기뿐만 골라서, 한쪽에다 차곡차곡 쌓놓고, 나머지 부스래기는 쓰레배끼에다 틀어 넣는다. 벼루집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가드니, 명주 목도리를 들고 나와, 혹은 가려 싣다. 두루매기에 모자를 쓴 후, 체경 앞으로 간다)

광목사 원, 흥하긴 커녕, 이뿌기만 하시오.

거복 (이모저모로 비쳐 보드니 다시 끌리며) 그만두겠소, 역시. 이 더운 복 중에 목도리를 하다니 각하께 이 무슨 실례겠소?(pp.127~128)

25) 앙리 베르그손, 김진성 역, 『웃음:희극의 의미에 관한 소론』, 종로서적, 1991. p.14.

박거복의 이승만을 연상시키는 오각하에 대한 충성은 삼대째 내려오는 땅을 지키기 위한 목적과 삼대째 내려오는 행자나무를 기부함으로써 부윤이나 군수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나온다. 거복에 의하면 그의 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근점절약으로 생긴 눈물겨운 것이며 자신이 22년간이나 전당포를 운영해 늘려온 산물이었다. 그러나 거복이 일제시대에 그 땅을 유지하고 게다가 늘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정도로 소작인들을 착취하고 악덕고리대금으로 빈농들의 땅을 잠식한 결과이다. 거복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에서도 이루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주장하는 오각하에 기대는 것이 그의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거복 그렇게 되면, 공산당패에서 ‘땅을 농민에게’ 소릴 감히 해? 당장 잡아다가 물고를 벌테야. (점점 흥분해 온다) 땅은 절대루 작인들한테 빼길 넘너 없어. 집두 빼길 넘너 없구. 은행예금두 빼길 넘너 없어. 빼기긴커녕 일본놈들 두구 간 땅, 신한공사에 얘기해서 떠맡어 가지구 지금보담 곱은 늘릴 수 있어. 소작료 ‘많네’ 하구 군소리 하는 놈들은 이루 사정없이, 무 줄거리 찢르듯 탁탁 처버리구 쌀은 종전대루 또박또박 받아서, 저 곡간 속에다 가득히 싸놓구 다리 뺏구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서울 가 있는 수정이가 대학을 졸업하구 내려오는대루, 이 집하구 땅을 물려주구, 난 맘 툅 놓구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 공산당 부란당패들한테 손톱 하나 깎다하지 못하게 하구, 고스란이 큰애한테 물려줄 수 있어. 수정이꺼정 가면 사대제야. 할아버님 부터 사대제야. (감격하여 눈시울이 시큰해진다.)(p.140)

그러면 거복이 재산을 지킨 후 위하는 나라는 누가 주체가 된 어떤 나라인가. 이 작품은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상징하는 고목을 중심으로 인물들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전개된다. 거복이 애지중지하는 행자나무는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쓰라고 유연한 나무로 일제 말에는 자진해서 해군에 공출하려

던 것이며 해방 후에는 자주독립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오각하의 별장에 놓을 화로와 장기, 바둑판을 만들어 기부하려는 것이다. 오각하의 별장에 행자나무로 만든 물건들을 헌납하는 것은 명백히 나라를 위한 길이므로 곧 조선의 삼천만 동포들을 위한 것과 동일시된다. 그가 생각하는 민족은 전제민과 수재민들만이 아니라 공장주인, 상인, 광교장 같은 목사, 순사 형사, 지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즉 자기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이 중심이 된 나라를 꿈꾸고 있다.

박거복은 지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소작인 ‘막봉’이나 떠돌이 별목꾼 ‘초국’과 그 딸 ‘진이’ 그리고 청년단장 ‘하동정’ 같은 인물들은 모두 공산당패와 같은 존재이다. 거복이 믿고 있는 오각하는 ‘오직 나라를 생각하시는 일편단심’을 가지고 ‘추잡한 물질적 욕망은 터럭끝만치도’ 없는 ‘백이숙제’같은 청렴한 사람이다. 그것은 오각하가 주장하고 실천하는 국가건설의 내용이 거복의 토지와 모든 권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각하와 자주독립을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었고, 오각하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었다.

오각하는 이승만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피함으로써 정권을 획득하고 미국의 대소봉쇄정책에 부합하여 반공을 외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²⁶⁾ 따라서 북한에서의 토지개혁 내용과는 달리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청산으로서의 내용을 가질 수도 없었고, 농업 생산력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군정 토지정책의 기본 성격은 국내공산주의,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의 구축과 동시에 전면적 토지개혁

26) 김도현, 앞의 글, pp.315-318 참조.

“47년초, 미국은 국무성 초대 정책기획위원장 조지 F 캐년의 봉쇄정책의 이론을 채택, 적극적인 대소련봉쇄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그나마 유지되던 미소협조체제는 붕괴되고 트루만 독트린(47.3.12) 마셜계획(6.5) 등으로 구체적으로 미소대립관계로 발전했다. 트루만 독트린은 그리스와 터키의 반공세력을 위해 군사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세계의 다른 국가에도 이런 지원을 할 것을 선언” 하였다. 미군정은 남한에 진주하여 미군정의 어떤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포고 하였으며 국내의 항일세력을 망라한 ‘조선인민공화국’을 좌익으로 규정하였다. 일제관료와 총독기구를 활용하여 미국식 이념과 체제를 수용한 보수우익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미군정의 대한정책이었다.

요구를 포함한 정치, 사회적 격동에 대응하여 위기에 선 반봉건적 지주제를 미군정 자신의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타협적으로 해소하려 한 것이었다. 따라서 반봉건적 지주제의 본질을 잔존시키면서 점령정책의 협력계층으로서 지주세력을 지지 보호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²⁷⁾

46년 초 모든 일본인 소유농지와 조선인 지주의 소작지를 대상으로 무상 몰수하여 무상분배한 북한의 토지개혁 내용은 남한의 농지개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 거북의 소작인 '막봉'과 거북에게 땅을 뺏기고 떠돌아다니는 '초국'의 언술을 통해 그 기대를 알 수 있다.

막봉이 삼칠제 도조두 바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소작료 고값 빼듯 빼다 바치구, 그 우에 또 닭하구 엿을 과다 바쳐요?(p.124)

초 국 허지만 너두 이눔아, 인젠 먹은 거 겨놀 날이 왔다. 함경두선 너 같은 지주놈들의 땅하구, 일본놈들이 빼서갔든 땅은, 모조리 몰수해서, 작인들한테 전부 노나줬다. 작인들은 대두 한 말에 두 되 가웃식 현물세를 바치구 나선, 남어진 떡 해먹구, 술 해먹구, 자유판매하고 제 맘 제 콩이야. 천지가 뒤바졌어 이눔아. 개혁을 했어. 느이놈들이 잘 먹구 날뛰든 세상이 뒤바졌단 말이야.(pp.132~133)

그러나 농민들은 오각하의 언설을 듣고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돌아선다. 오각하의 정책은 대다수 농민이 바라는 토지분배의 내용이 아니라 유상분배라는 미봉책이었기 때문이다. 오각하는 대다수 민중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하는 대신 자신의 정책에 따라오지 않고 뭇치지 않는 자는 삼팔선 이북에 있는 공산당이라고 몰아붙이고 반공이념을 내세운다.

27)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2, 돌베개, 1985. pp.287-289. '미군정에서의 3할의 소작료와 수확량의 4 내지 6할에 이르는 강제공출 기타 각종 세금 및 납부금, 군정이 새로 창출한 하곡공출은 농가경제의 영락과 이농(離農), 농업생산의 급감을 초래한다.' 미군정의 토지정책을 포함한 농업정책은 토지소유관계의 봉건적 유제를 기초로 저임금 - 저농산물가격을 중심으로 한 한국자본주의의 대외의존적 비자립적 전개의 주요계기를 형성한 것이다.

<황혼>과 <고목>은 미군정과 보수우익 정당의 그늘아래서 비호받고 있는 전형적 친일 사업가와 지주의 생리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그들의 민족과 나라는 민중과 유리된 지배층의 기득권을 비호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 한다. 스스로 애국자를 행세하지만 민족과 나라를, 애국을 말하면서 스스로 친일세력이었던 전력을 드러내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품고 있는 야심의 정체를 폭로한다. 두 작품에 이어 오영진의 <살아있는 이중생각하>²⁸⁾에서도, 가사(假死) 휴계까지 꾸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친일파의 생리를 비판하고 있다.

이중생은 일제시대부터 세도가 당당한 실업가로 해방 후에는 국유림을 사유화하고 제지회사를 차려 한국의 임업과 제지업을 독점하려고 휴계를 꾸민다. 그는 일제시대에는 장남을 징용보내어 자신의 치부를 보장받고 해방후에는 둘째딸을 미국인의 애인으로 붙여주고 미군정청의 신임을 받는다. 그러나 그의 야욕이 실현되기 전에 배임횡령, 공문서위조, 탈세 등의 혐의가 드러나 전재산이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다. 자기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가장한 자살극을 꾸민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일 모리배이다.

최변호사 물론 그렇습죠 왜 그자들한테 영감 재산에 손꼬락 하나 다치게 한단 말씀입니까, 어디 가만 계십쇼 체근체근 좀 바쳐야 할 공금 총액이 육억 이천 만환에 이에 해당하는 세금과 연체 이자라……
(p.89)

최변호사 결국 저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것은 사기, 배임 횡령, 공문서 위조 및 탈세범인 위대한 사업가 이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이중생만

28) 오영진, 「살아있는 이중생각하」, 『현대회곡작품집』4, 서광학술자료사, 1994.

이 작품은 49년 6월 국예술협회에 의해 공연되어 다음과 같은 평을 얻는다.

“오영진씨가 가지고 있는 유머와 풍자는 그의 전작(前作)들에 있어서 이미 정평이 있거니와 금번 신회곡 속에 담겨있는 풍자 또한 형금대두되다간 흐려져가는 반민자들의 교활하고도 가증스러운 발악양상을 정면으로 날카롭게 찌르는 대신, 씨의 독특한 유머로 반공(反攻)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춘인, 「풍자와 교훈」 -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를 보고, 『경향신문』, 1949.6.6.

없어지구 불 지경이면 문제는 아주 간단허다 할 수 밖에 없읍죠! 탈
세한 돈이며 연체된 이자며 횡령한 공금을 받을래야 받을 길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중생 내가 없어진다?

최번호사 그렇죠 세상에서, 땅위에서 없어지구 말아야죠.(p.93)

이중생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계락을 꾸미면서 드러나는 죄를 인정하면
서도 재산에 대한 집착으로 일관하는 경직성으로 인해 회극적인 인물이 된
다. 이중생은 <황혼>의 이진수와 <고목>의 박거복과 같이 나라를 앞세우
고 애국을 가장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작품의 발표연대와도 관련되어 있
다고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공연된 49년은 이미 남한단독정부가
서고 좌익세력과의 갈등이 어느정도 해소되어 반공 이념을 구축할 시기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직후 조만식의 측근으로 반공 반탁 투쟁에 앞장섰으며
송영과 함세덕이 월북한 반면 47년 11월 평양을 탈출하여 월남한 오영진²⁹⁾
의 이념적 지향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는 건설된 나라를 전제로 나라의 법을 어기고 사
리사욕을 취하려는 친일모리배를 풍자함으로써 병든 사회를 고발하고 새로
운 독재자인 공산주의를 경계하는 작품이다.

4. 세대간의 갈등과 친일파의 패배

이진수, 박거복, 이중생을 중심으로 한 친일군상들은 자신들의 입을 통해
서 스스로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이들 부정적 인물들은 일본이 물러가고 해
방을 맞이한 사회에서도 자기 인식에 이르지 못 하고 보수우익의 이념과 미
군정에 기대어 일신의 안락을 꾀하는 자들로서 척결되어야 할 대상들이다.
이러한 친일군상들과 갈등을 겪는 인물들은 새로이 건설될 조국을 짊어지고
갈 새 세대이다. 이들은 대부분 친일파의 혈연관계인 가족들로 잘못된 의식

29) 한옥근, 『오영진연구』, 시인사, 1993. pp.22~26 참조

과 행적을 비판함으로써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 비판의 당사자들이 가족이라는 점은 진정한 민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비판의 대상에게는 가족으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징벌의 의미를 지닌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권세를 가지고 인민을 지배하다가 일본제국주의에 투항해서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은 조선 사람의 적이며 조선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작가들의 생각이다.

조선 민족이라면 일본제국주의와 그 협력자인 구봉건 지배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압제받으며 그 생존을 위하여 싸운 노동자, 농민, 소시민, 인텔리겐차들이다. 8할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근로인민이 조선 민족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³⁰⁾

<황혼>에서는 이진수의 딸 진주와 통역관인 청년 김영철, 그리고 처의 이종사촌인 옥천마님을 통해 직접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진주는 일본제국주의 교육에 종사하였던 점을 참회하기 위해 교사들의 총사직에 동참하고 있다. 진주는 이진수와의 부녀관계가 ‘한 개의 비국’이라고 말하며 정당을 꾸미느라 바쁜 아버지와 갈등한다.

진주 아버지 저더러 다시 교편을 잡으라고 하시기 전에 아버지 자신 먼저 정당이니 건국이니 하는 미명 밑에서 도리어 건국을 천연(遷延)식히는 행동을 중지해 주세야 합니다. (분연히 안으로 들어간다) (p.105)

통역관의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김영철은 이진수의 애국당을 미군정에 알리고 원조를 청하기 위해 불러온 인물이다. 그러나 김영철은 애국당의 매국적 성격을 파악하고 통역의 역할을 거부한 채 그들의 정체를 폭로한다. 김영철은 해방직후 통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욕을 챙기는 현상을 인식하고 전인민의 충의를 알리기 위해 자진해서 통역이 된 인물이다. 그러니 조

30) 박찬모, 「인간의 생활과 문학의 과제」, 『문학평론』, 1947.4.14.

선이 자주독립할 능력이 없으므로 연합군의 군정이 있어주기를 바란다는 애국당의 의도가 불순한 사대주의 노예근성이며 과거의 죄를 보상하려는 발악으로 파악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진수는 독립운동가의 아내인 옥천마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다 놓고 간판을 삼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옥천마님은 독립군의 아내로 설움을 받았던 세월을 회상하고 이진수의 부일협력을 일체의 손발이 되는 개같은 행위라고 비판하고 돌아간다. 이렇게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이용하려던 대상들에게 거부당함으로써 이진수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게다가 바보스러운 하인 오서방에 의해서 그의 기만이 조롱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오 네 황송합니다. (웃으며) 그러나 저도 하도 실통해서 그런답니다. 엇그제까지 왜놈들을 칭해다 놓고 회사 잘 될 의논들을 하시든 영감들께서 인제는 이럿게들 우리 나라 독립 꾸미는 회들을 매일밤 하시게들 되신 것을 생각하오면……(감격에 빠진다)

강 (옥갓게 들고서) 뭐야, 이 사람! (성을 낸다)

오 (둥절해지며) 아니올시다.(p.103)

어떤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존재인 이진수는 건전한 의식을 지닌 딸로부터 참회를 권유받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고 말겠다는 재기의 다짐을 하는 전형적인 친일파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상징하듯 재기를 꿈꾸는 친일파는 새로이 건설될 국가에서 심판받고 사라져야할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송영의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 결말에서 볼 수 있는 이진수의 다짐을 표현하는 강렬한 황혼의 사양과 건국을 위해 일제잔재 청산을 부르짖는 청년들의 점점 커지는 합창소리의 대비는 바로 친일파가 재득세하는 현실과 그들을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는 이상의 대비라고 볼 수 있다.

<고목>의 박거복 역시 가족들로부터 고립되고 오각하의 정책을 지지하여 토지를 늘려보려는 야욕이 무산되는 징벌을 받는다. 박거복의 마당에 있는 행자나무는 삼대째 내려오는 고목으로 봉건잔재, 일제잔재를 상징한다. 해방

이 되자 고목은 베어져 나라를 위해 썩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다.

이 작품은 고목을 중심으로 인물들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하나는 박거복의 처남인 영팔의 필요이다. 영팔은 전재민으로 해방을 맞은 조국에 돌아왔지만 집도 일자리도 양식도 없는 비참한 형편이다. 그는 고목을 이용해 장롱을 만들어 팔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게 되고 처자식과 살아갈 길이 열리는 생존의 필요이다. 두 번째는 고목을 수해기금으로 기부하라고 권유하는 청년단장 하동정과과의 갈등이다. 수해동포들을 구제하는 데 고목이 이용되면 거복에게는 나무를 일제시대 공출로 내놓으려던 과오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참회의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필요를 목살하고 오각하에게 화로와 장기관을 만들어 기부함으로써 토지를 지키고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복의 필요이다.

고목의 처리에 있어 가장 가치있는 쓰임은 나무를 영팔에게 팔아 영팔의 재기를 돕고 고목을 판 돈으로 수해기금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를 나라를 위해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거복은 애국당지부의 재정부장에서 미끌어지고 오각하에 대한 기부를 철회하지만 끝내 가치있게 쓰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오각하의 연설을 직접 듣고 농민들과 함께 각기 다른 이유로 실패해버린 그의 노모와 처 그리고 딸의 요구에 의해서 고목을 내놓게 된다.

동정 (방문 앞에 가 딱 막아서며) 나한테 직접 하셨건 제삼자한테 하셨건 내 준다구 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점잖으신 량반이 일구이언이 됩니까?

거복 허지만 난 꼭목사한테 했지 당신한테 일구이언한 건 아니니까, 꼭 리행 해야만 될 의문 없오. (하고 마루 뒷문으로 피해 나간다)

처 당신두 어린애두 아니구 그게 뭐요? 행자나물 령팔이한테 팔아서, 그 돈으루 구제금 바치겠다 소리, 수박 쓸면서 나두 들었오. 준됐다 안준됐다, 체통 사납게 그게 뭐요? 다른 일두 아니구 일가친척 구하구, 한고을 사람 구하는 일에.

(중략)

거복 나라를 위해 쓰라구 유언하신 나물 어떻게 령팔이한테 주라구 이 야단

이야, 야단이? 저리 비켜, 빨리.

(처가 움직이지 않음으로 돌아서서 내려온다. 피해서 중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모, 안에서 나와 문지방 앞에 막아선다)

(중략)

노모 나라를 위하는 거란, 너같이 꼭 벼슬짜리 얻어 할려구 쓰는 거만이라 드나? 수해구제두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거지 구하는 것두 다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그리게 인자한 남군은 왕위에 올리시문 거지찬처 부터 베푸시는 법이란다.

거복 몰르문 어머니, 가만이나 계세요. 얼른 저리 비키세요.

노모 난 비킬 수 없다. 갈라거든 내 눈 앞에서 떠땃히 사내답게 내주구 가거라. (노모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거복, 피해야 중문과 창고 사이길로 나갈려고 한다. 수국, 사이길에서 나오며 부의 앞에 막아선다)

수국 화로하구 바둑판을 맹글어서 오각하한테 기불했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아까 그, 내 수포처럼 무참한 꼬락선이가 안 됐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어요?(pp.150~151)

나무를 내주지 않고는 거복이 설 자리가 없게 된 상황설정은 거복과 행자 나무가 상징하는 봉건유제와 일제잔재를 뿌리뽑아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작가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는 바로 비참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이며 이들의 연대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거복을 막아서는 가족들은 오각하의 연설을 계기로 변화한다. 노모는 오각하의 부인이 서양사람인 것을 보고 전통적 예법상 양국부인을 왕빈으로 모실 수 없다고 분노한다. 서양사람들은 화롯불을 쪼지 않고 화덕을 피우고 사는 사람들이니 나무의 기부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딸 수국은 정성들여 수놓은 보료가 오각하의 진흙 묻은 구둑발에 밟혀버리자 지난 날 동맹휴학에서 동무들을 배반한 일을 떠올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처는 거복의 계획이 무산되고 딸의 정성이 수모를 받자 더이상 거복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 이들의 깨우침은 개인의 사고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데 바로 이런 점이 작품의 설득력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거북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며 새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청년단장 하동정이다. 그는 전문학교까지 마친 지식인으로 고향을 위해 청년단을 조직하고 계몽활동과 아울러 수재민 구제 사업에 힘쓰는 인물이다. 하동정과 같은 인물이야말로 새 조국의 건설을 향해 매진하는 긍정적 인물형이다. 따라서 그는 해방의 혼란을 틈타 일신의 영달을 꾀하는 거북을 비판하고 대립하지만 시종일관 흥분하지 않고 민중과 유리된 오각하를 비판함으로써 거북에게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돕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거북을 자기인식에 이르게 하는 데는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그보다는 작품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오각하의 기만적인 정책을 폭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민중이 나아가야 할 바를 작가 대신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거북은 행자나무를 처남 영팔에게 그리고 수재기금으로 내놓지만 그 자체로 정당한 가치를 회복하지는 못한다.

거북 …… 공산당에선 내 땅두 이렇게 뺏아갈 꺼야 …… 오늘 같은 똑같은 방법으루, 하라버님때부터 내려오는 이천 석지길 뺏어갈꺼야 …… 나를 막다른 골목에다 몰아너 놓구 …… 꼼짝달삭두 못하게 칭칭 얹어 놓구 …… 이, 이, 이천 석직일 송두리째 빼, 뺏어갈 거야.(p.156)

이렇듯 그는 자신의 모든 의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정당한 가치를 지닌 세계와 화합하지 못한다. ‘일동의 웅성거리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초국이 나무를 베다. 문을 걸어잠그고 들어앉은 거북에게는 나무를 베는 도끼 소리가 자신의 늑골을 찌히는 듯한 비통한 소리이다. 도끼 소리는 봉건잔재와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민중이 주체가 된 국가를 건설하는 희망찬 소리지만 거북과 같은 인물들에게는 지금껏 유지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조그만 방안에 고립되어 신음하는 거북과 청년들에게 포위되어 재기를 다짐하는 이진수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당한 자신들의 세계를 끝

내 지키려 하는 친일파의 생리를 잘 보여준다.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의 주인공 이중생은 위기를 극복하려고 꾸민 자살극이 오히려 위기가 되어 돌아와 비극적인 말로를 맞는다. 이중생은 자기의 아들을 징용보내고 딸을 미국인의 애인으로 내몰 만큼 기만적이고 탐욕스런 인물인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같은 부류라고 볼 수 있는 이중생의 처와 큰 딸이 그의 수완과 처세를 칭찬하면서 그의 민족적인 죄상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박씨 형님은 유복두 하시지, 예나 지금이나 어찌면 그 양반의 세도가 하루 같이 쩡쨍하우.

우씨 예그 유복이 뭐 말라 죽은 게 유복이유? 글썽 빠루를 자시기 시작하면 한 상자두 그만, 두 상자두 그만이니 술 잘하신단 외국손님두 그만 해를 채구 물러앉구 마는구려. 그러기에 아우님두 알다시피 우리 재목회사두 영감이 말겠다 안 말겠다 말두 없는데 해방이 되자 군정청 관리들이 그저 억지루 떠넘기다시피 허지 않았어요. 겨울마다 아우님네게 보내드린 장작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의 산림사업을 통째 떠맡다시피 했으니 그쯤이야 뭐, 호호 ……(p.73)

송달지 결정됐대? 아이 씨 에이 딸라 살 돈을 어테서 조달했누?

하주 여보세요. 돈 있으면 누군들 못허리까 …… 영어 한 자 모르는 아버지가 문턱이 닳두룩 미국기관 출입을 했어요, 미국기관 출입을 - 미국기관두 큰 삼림회사를 가진 아버지께 불하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구 또 그게 아무 모루 보아서두 당연한 처사지. 알아 들었어요?

송달지 삼림회사가 뭐, 아버지 건가? 일본놈에게서 뺏은 국유림이지. 아버지건 그 관리인이다 뿐이지. (p.78)

이들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더라도 힘있는 자들에게 결탁하여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매국적인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 그 장본인인 이중생은 자식까지 희생의 제물로 이용할 만큼 악독한 인물이

다. 이중생의 가정은 이중생의 탐욕으로 파탄되어 조금의 순결성도 지니지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해방 후 제세상이나 만난 듯이 행세하고 다니는 친일모리배로 인해서 혼탁한 사회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이중생과 갈등하고 이중생의 허욕을 허락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 사위 송달지와 아들 하식이다. 송달지는 거짓으로 죽은 이중생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는 근대적 교육을 받은 의사이지만 무기력하고 뚜렷한 삶의 지향을 지니지 못 한다. 그러기에 장인의 잘못을 알지만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 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장인의 유산을 보건의설에 쓰겠다고 국회에서 나온 김의원에게 약속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에 도달한다.

송달지는 정용에서 돌아온 하식과 만나 비로소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송달지 하식이, 내가 왜 '자네 집 재산을 물에 타버리겠다. 재산두 귀하구 아버님의 명예와 지위두 소중하지만 어떻게 나리를 속이구 법을 어긴단 말인가. 옳다구 생각하는 처사를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까지 해서야 되겠나 말일세. 우리가 그러면 누가 국가의 사업을 돕구 우리들의 후배는 어떻게 되느냐 말일세. (중략) 하영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떠들 때도 아니구 장차로두 어떤 세력을 믿구 저 혼자의 이익을 위하여 날뛰어서는 안될 게 아닌가 ……

하 식 형님, 고정하심쇼. 잘 알겠어요. 아버지 시대는 이미 지났어. 형님두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가지구 변민할게 뭐 있수. 형님, 우리 앞엔 우리를 새로운 권력과 독재자에게 팔아먹으려는 원수가 있어요. 나는 골고루 보고 왔어요. 할빈, 장춘, 홍남, 그러군 화태! 어 몸서리가칩니다. 형님, 우리나라가 독립된 줄두 모르고 있는 친구들- 어서 들어갑시다. 할 이야기가 산더미같이 쌓였어요, 집안일은 순리대루 돼 나갈테죠.(pp.110~111)

아버지 시대는 이미 지났다구 거침없이 말하는 하식은 새로운 시대의 도

래를 뜻하고 있는데, 새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철저한 반공으로 제시한다.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하식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는 친일모리배 이중생 풍자로 일관해온 작품의 주제를 뒤바꾸고 있다. 친일모리배는 이중생의 자살로 표현되는 것처럼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오영진의 낭만적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중생의 죽음은 '작품의 논리를 파괴하는 모멘트'가 되어 인물은 유형화되고 작품은 인과응보의 '멜로드라마'로 떨어졌다는 평가 31)를 면하지 못하게 한다.

5. 결론 - 이상과 현실

이상으로 해방 후 창작된 세 편의 희곡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의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어 투영되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황혼> <고목>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는 모두 해방 후 사회의 혼란을 틈타 재득세하려는 친일사업가, 봉건지주를 풍자하고 있는데, 작가들의 정치적 태도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로당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조선연극동맹'의 작가 송영과 함세덕은 각기 46년과 47년에 월북³²⁾하는 좌익작가들이며, 오영진은 조선민주당의 중앙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47년말 월남하는 우익진영의 작가라는 점에서 뚜렷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 작품들은 발표된 연대가 순차적인데, 급변하는 정치, 사회적 현실과 관련하여 친일파의 등장배경이 되는 세력에 대한 비판과 미래 사회에 대한 지향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45년 12월에 발표된 <황혼>은 권력의 중심이 없는 해방직후, 친일파들이 정당을 만들어 중심세력을 형성하려는 음모를 경계하려는 작품이다. 민주주의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상황의 반영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의 주체세력 형성과정에서 겪는 혼란이기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념을 넘어선 민족통일전선에서도

31)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p.425.

32) 권영민 편, 『남·월북문인 인명록』, 『문예중앙』, 1987 겨울호 참조

반드시 친일파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이상이 표현되어 있다.

<황혼>에서는 친일파들의 정당이 해외 민족주의 운동의 상징인 임정과 미군정을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통역관 김영철의 언술³³⁾에서도 드러나듯이 미국을 연합군으로서, 조선독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직후 미군정에 대한 조선공산당³⁴⁾의 인식과도 관련된 것으로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장려하는 세력으로 인식하지 못한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고목>은 <황혼>에 비해서 친일세력을 기반으로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는 보수우익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민중들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고, 민중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토지정책을 펴는 ‘오각하’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이 연대하여 봉건잔재와 일제잔재의 상징인 고목을 베는 결말로 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조국에의 건설을 희망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47년의 현실은 ‘일제 관료와 총독기구’를 활용, 미국식 이념과 체제를 수용한 보수우익정권을 창출하려는 미군정의 대소련봉쇄정책이 실현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친일파를 배제한 민주주의적 정치를 실현하려는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³⁵⁾ 그러므로 소작인인 ‘막봉’이 북한의 토지개혁 정책을 언급하면서 ‘결국 땅은 북선처럼 우리 앞으로 오구

33) “당신들이 아주 우리가 자주독립될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연합국에다가 우리나라 실정을 왜곡해 가지고 독립을 천연시키자는 말입니다.” 송영, 『황혼』, 『예술운동』1호, 1945.12. p.113.

34) 윤여탁, 『해방정국의 문학운동과 조직에 대한 연구』,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현실인식』, 한울, 1989. pp.60~61 참조.

46년 5월 4, 5일 양일간에 걸쳐 검거가 이루어진 ‘정판사 위폐사건’을 계기로 조선공산당은 미군정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기본노선을 수정하여 미군정에 대한 투쟁을 적극적 공세로 전개한다는 내용의 ‘신전술’을 채택한다.

35)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탄압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예술부문에 도 미쳐 47년 1월에는 ‘홍행 취체에 관한 고시’로 강화된다. 작품과 상연에 대한 검열은 실제로 47년 2월 26일부터 개최된 ‘3·1기념 연극제’에서 나타나 함세덕의 <태백산맥>과 조영출의 <위대한 사랑>은 홍행고시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금지당하고 내용을 삭제 당하고서야 공연할 수 있었다. 함세덕은 47년 제 2차 전국문학자 대회가 실패하자 일복하게 된다. 『독립신보』, 1947.2.27~3.12참조

말'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작가의 낙관적인 현실인식에서 오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이중생각하>는 단독정부를 수립한 후에 발표된 작품으로 작가의 이념적 지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일모리배를 비판하고 공산주의 등장을 경계하고 있다.

이중생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벌이는 거짓 자살극은 이중생의 실제 자살로 끝을 맺고 마는데, 이러한 결말로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순리에 맞겨 해결하자는 식의 안이한 작가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말은 친일파 이중생 풍자로 일관해온 작품의 주제를 흐리고 있다. 또한 이중생의 아들, 하식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과제로써 반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단에 따른 민족의 비극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봉건유제에 기반한 일제잔재의 청산은 민주주의 민족국가 건설과제의 핵심적 내용이었으며, 민족적 자기비판을 전제로 시작된다. 그것은 36년간이나 지속된 일제 식민통치에 의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 뿌리깊게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의 자기비판은 민족사적 과제에 직면하여 이념적 매진이나 침묵, 변명 등의 양태로 희석화된다. 작가들 역시 성실한 자기 비판을 행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내면의식에 자리잡은 책임의식을 친일군상의 풍자로 대신하고 있다.

친일군상들에 대한 풍자는 해방 후 현실에서 취재한 것으로 설득력을 지니며, 일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넘어선 전형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작품에서 드러나는 당위적 전망은 현실과 유리되어 이상으로 제시되는 한계를 지닌다. 해방 후 민족의 이상과 괴리되어 나타나는 부조리한 현실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말았으며, 오늘에 이르러 식민잔재의 탐색과 해체라는 과제를 남겨놓았다.

참 고 문 헌

-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 권영민, 『한국민족문학론 연구』, 민음사, 1988.
- 김동권 편, 『현대희곡작품집』, 서광학술자료사, 1994.
- 김삼웅·이헌중·정운현 공저, 『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학민사, 1990.
- 김승환, 『해방공간의 현실주의 문학연구』, 일지사, 1991.
-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9.
-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제 23집, 단대 출판부, 1993.
- 민주주의 민족전선, 『조선해방 1년사』, 문우인서관, 1946.
-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0.
- 신형기, 『해방3년의 비평문학』, 세계, 1988.
-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제 3문학사, 1989.
- 양승국 편, 『한국근대연극영화비평자료집』, 태동, 1991.
-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홍성사, 1982.
-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87.
- 이해량, 『허상의 진실』, 새문사, 1991.
- 한옥근, 『오영진 연구』, 시인사, 1993.
-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제 2집, 태동, 1992.
- 현재원, 「함세덕 희곡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 노드롭 프라이,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89.
- 로널드 폴슨, 김옥수 역, 『풍자문학론』, 지평, 1992.
- 앙리 베르그손, 김진성 역, 『웃음: 희극의 의미에 관한 소론』, 종로서적, 1991.